

전남지역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손인아 · 강혜영 · 정영

요 약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 분석을 위해 전남지역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에게 설문용지를 배부하여 활동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세였고 교육은 대부분 (65.7%)이 간호전문대학 수준이었다. 이들중 65.7%가 기혼자였고 종교는 77.6%가 갖고 있었으며 진료원 경력은 5년이상인 11.2%, 1년 미만이 17.5%로 나타났다.

2. 업무와 관련된 배경

근무지역 조건으로서 55.9%가 갑지에서 근무했고 응답자의 97.1%가 진료소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진료소는 92%가 신축 건물을 사용한다고 했다. 진료소 시설상태에 관한 응답은 36%가 좋다고 하였고 호봉수준은 현재 1~2호봉의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다. 운영협의회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28.9%며 벽오지 수당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16.3%였다.

3. 직업만족도

만족한다가 44.6%, 만족하지 않는다는 6.9

4. 담당주민수 및 보건진료소 이용률

전남지역 보건진료원 1인당 평균 담당 주민수는 1789명 수준인데 적정담당 주민수에 관한 견해는 501~1500명이다가 68%로 가장 높았다. 연간 이용 인원의 경우 501~2000명이 34.3%로 가장 많았고 이용건수로는 500건 이하의 경우가 5.3%로 가장 적었다.

5. 보건의료자원

기존 보건의료자원으로서 45.5%가 약방 및 약종상이었고 지역주민이 1-2-3순위로 이용한다는 의료자원은 보건진료소 약국 및 약방 의원 순이었다. 원하는 감독체계는 보건소장을 원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고 전문간호감독요원에 의한 기술지도 및 감독의 견해는 54.6%가 찬성했다. 많이 이용하는 의뢰기관은 병원 및 의원이 78.2%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6. 보건의료자원과의 협조관계

보건소와의 협조관계는 높게 (55.6%), 보건지소와의 협조관계는 낮게 (27.2%) 나타났다.

7. 업무 영역별 수행정도

통상질환관리가 가장 높았고 사회계획수립 영

역이 가장 낮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보건진료원 배출 연혁이 길어감으로서 그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며 기혼자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보건진료원은 아직 그들의 보수체계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운영협의회 수당은 지역에 따라 일관성없이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체계로서는 보건소, 보건소장과의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보여졌고 전문 간호감독요원에 관한 찬성의 견해도 높게 나타나 앞으로 감독체계도 지양되어야 할 것 같다. 보건진료원의 업무는 아직 진료영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1차 보건의료사업을 균형있게 수행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상자들이 “어떤 종류의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항구적인 질문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그들의 사업 내용에 관한 수용도, 만족도도 보다 깊이있게 조사되어야겠다.

또한 본 연구의 계속으로서

- 1) 일반적 특성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업무 수행정도와의 관계
- 2) 기타 관련 변수와 업무수행정도와의 관계
- 3) 업무 수행정도에 대한 직무내용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이 시행될 계획이다.